

# 제 2화

불타는 금요일의 형제들

킬러웨일과  
나이트라이프





**알파독**  
(Alpha dog)

이 거리 주변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은 빌런이다

능력은 [우두머리],  
주변에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가 많을수록  
힘이 강해진다...  
라고 하는군

..결국 오늘도  
빌런 사냥해요?

저기..  
히어로랑은  
언제 싸움  
붙여주실  
거예요?

허허,  
벌써 싸우고 싶어서  
근질근질한거 알겠지만  
이녀석아,  
주제를 알아야지

제시했던조건이  
다르잖아요  
전 [히어로] 랑  
싸우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뭐, 누누히  
말했지만  
그렇게 불만이면  
굳이 또 말해주지

윽걱

윽걱

빌런이 꼭  
명심해야할  
세가지,

'영역',  
'서열',  
'어필'



너는 이제  
겨우 발판이  
마련된 생초보야

히어로와 다르게  
빌런은 태생부터  
외면받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빌런들이 묻히고있지

와작

초짜가  
처음부터  
히어로랑  
싸울 생각이나  
하고 있고말이야~  
으~~딜 감히

와작

주목 받으려면,  
빌런부터 이겨라  
빌런팬들에게  
너가 어떤 놈인지  
확실히 알려

명심해,  
'어필'이다  
빌런은  
'악'하기 때문에  
어필을 잘해야해  
기억하지?  
어? 기억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았다구요

조사해봤는데,  
주로 어필하는 방식이  
'섹스 어필'이더라고?  
흠치기 딱 좋은  
팬덤같지않나?

그러니까,  
제대로 함 떠봐  
꼬맹아

하..  
말이야 쉽지

저 녀석은  
무명치고는  
다른 빌런들보다  
훨씬 넓은 영역과  
팬층이 있어





' 나이트라이트 '







갱단!  
호출이다!

녀석을  
불잡아!

예,  
알파!

두명정도면  
무난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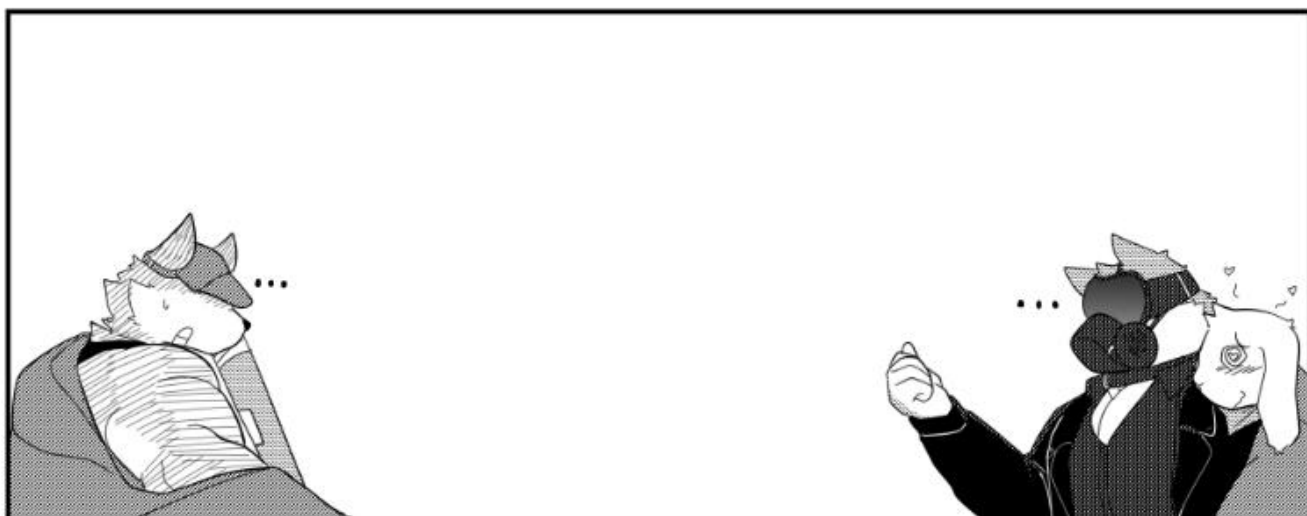
저번엔 몇십명을  
한번에 홀렸는데...!!













그럼 이제  
내 턴이네,  
애송아!



치프, 치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내  
직속 빌런인데  
주변 CCTV정도는  
빌려서 녹화하고  
있었지



아아  
보고있었어

보고있..

네?!

넌 아직 초짜라  
촬영 드론이  
허가가 안나  
전문 카메라맨은  
구하기도 힘들고







크...  
으그윽..

고맙아,  
고맙아!!  
괜찮나?!



..젠장







내 말은,  
니 그 변태  
컨셉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남근을 드러내고  
발기를 유지시킬

'짱다구'가 되느냐  
라고  
묻고싶은거다

묵직-

야외에서도,  
전투중에도,  
파트너가 마음에 안들어도,  
대중 앞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네 물건을 진짜로 이렇게  
단단히 세울 수 있을까?



너가 정말  
'섹스에 미친'  
빌런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부비적

부비적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떡을  
칠 수 있겠지?



뭐,  
그럴 수 있다면..

하아..

특별히 인정하고  
내가 진 셈 쳐주마

어떠냐,

하아..

해보겠느냐?





몸은 꽤 좋은  
흐음

비비적

비비적

하아

이정도면  
비벼댈 맛이 나겠어

하아

웃..아직  
기회는 있어,  
부하들 매혹을  
풀고-

부비

부비

하음..  
타이밍만 오면..!

쪽팔릴만한  
상황에서도  
꽤 흥분할 줄이야



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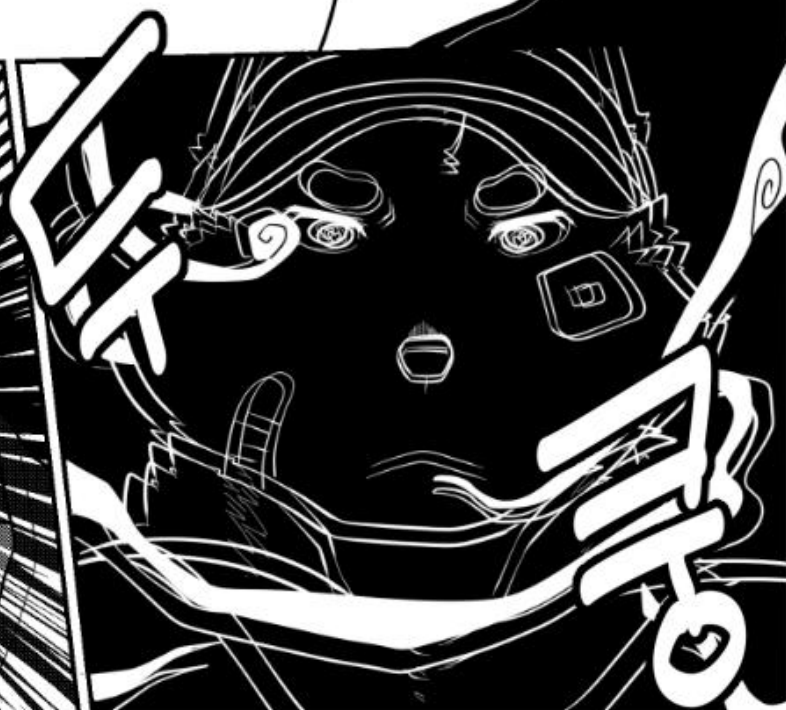
그래도  
생각만큼  
허세쟁이는  
아니었나..  
크크  
다시 봤어 신입

으음..  
예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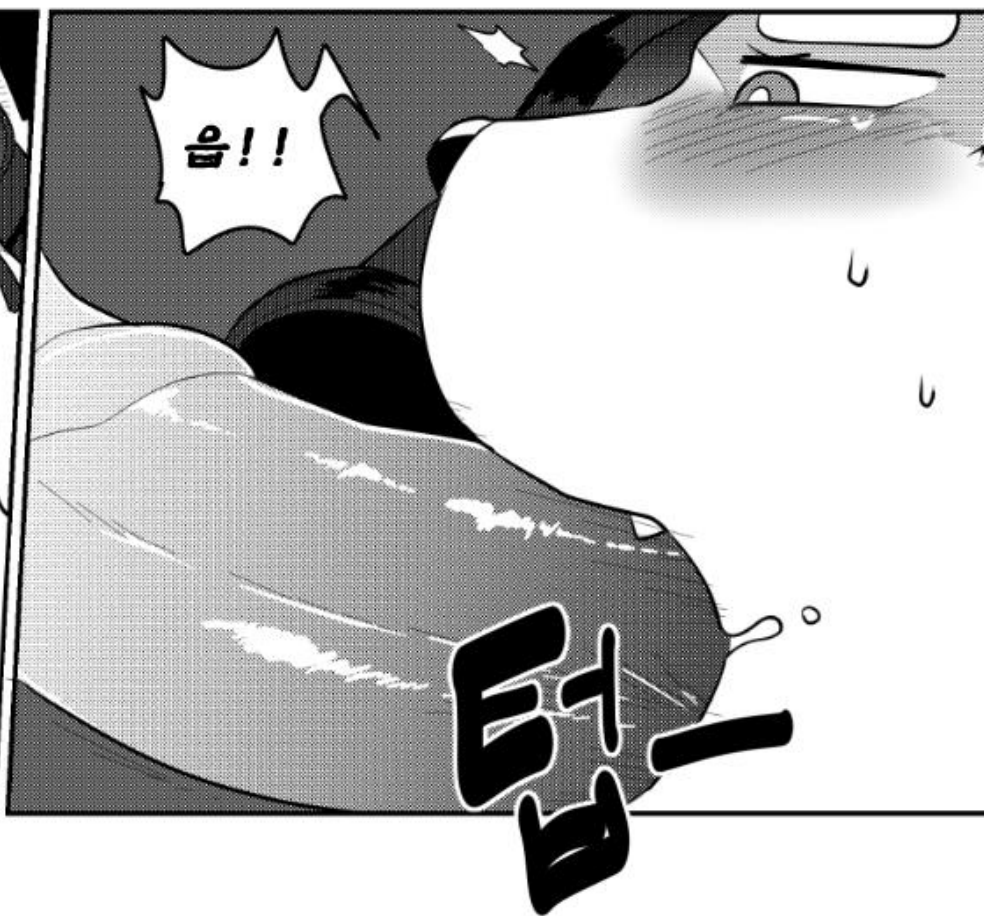
파!



쿵!













약속대로  
오늘은 내가 진 셈  
쳐주마

저녁

저녁

재미봤다,  
뉴비!





자,  
그럼

'빌런 회의'의  
인원체크를 하겠다

범솔피!

네

'죽음은 한순간이지'  
광속의 살인마 J!

'주님 한놈 더 갑니다'  
암흑 사제 더 파더!

귀신들린  
구마사,  
월리엄!

'그의 메스를  
두려워하라'  
외과의 테라토마!



그리고~~  
정보의 지배자!  
브레인~~  
치프!!!



응응, 오~케이  
답 바로 나왔어!

진짜요?  
뭔가 반응이  
대충대충인데요?

너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건  
역시

**필살기야!**

..필살기요?  
지금 제 얘기  
들은거  
맞아요??

들었어

근데 왜  
튼금없이  
필살기  
이야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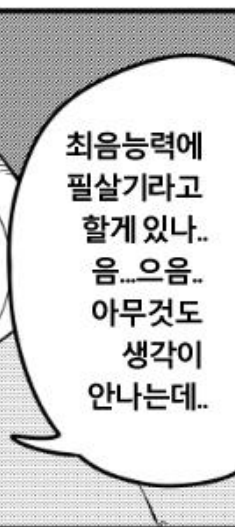
'필살기'가!  
너에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렇지?


필살기가 있었으면  
그리 무력하게  
당하지도 않았을거고

결국 이겼을테니  
그런 고민도  
안했겠지 그치?


하아... 진짜  
자기학 만만하고








다른건  
그렇다 쳐도  
정액은 제가 그냥  
빼드릴테니까,




저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면...!!




아~ 그것도  
확실히 받을거니까  
걱정마시라!

다만 네 흥분도가  
클 수록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는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쪽  
샘플을 얻어둬야겠어~



아니 님이  
무슨 미친  
과학자야?!




그래그래,  
흥분하는 건 좋아,  
그치만 지금은  
성적으로 흥분해줘










아~아  
나 원 참  
부하가 이렇게  
색골이라서  
난감하구만

부비적

부비적


기계에  
잡혔을 때 부터  
심장 박동이  
달라지는 걸  
애써 모른체  
하면서



옷 좀 벗었다고  
바로 박동수가  
올라가버리네?

하아


하아



흐음 그래그래,  
역시너가 흥분할수록  
주변 반경내에  
있는 사람도

소크

소크



흥분도가  
묘하게  
강해지는군



아아..  
이런 느낌이거나  
그래 확실히  
엄청 민감해져

아니 저..  
죄송합니다..

으음.. 머릿속에 온갖  
음탕한 생각이 흘러들어와  
요동치는데..  
이거 알아도 이정도인데  
모르면 그대로 자기 생각이라고  
느끼겠구만

앗

그렇게  
박히고 싶어?



아니 그렇게  
머릿속에서  
요동치는 것 같아서..  
무심코 말해버렸네

그치만  
난 상호 합의  
정도는  
한단 말이지

참는게 꽤 힘든건  
사실이야,  
진짜 능력이  
사기긴 하네

네..?!





게다가  
상~당히  
로맨틱한  
남자라서,

우정박을 할려면  
각 잡고  
해야할거다

아오  
진짜!!!

끼끼끼,  
어쨌든 샘플은  
진짜로  
필요했던거니까,  
부탁해



그나저나  
이제 어쩔담

AV 빌런이  
섹스를  
부끄러워해서  
찔찔 매면

완전 팔 없는  
팔빵이나  
다를 바가  
없는건데

빌런 하겠다고  
나왔으면서  
난 왜 이려고  
있는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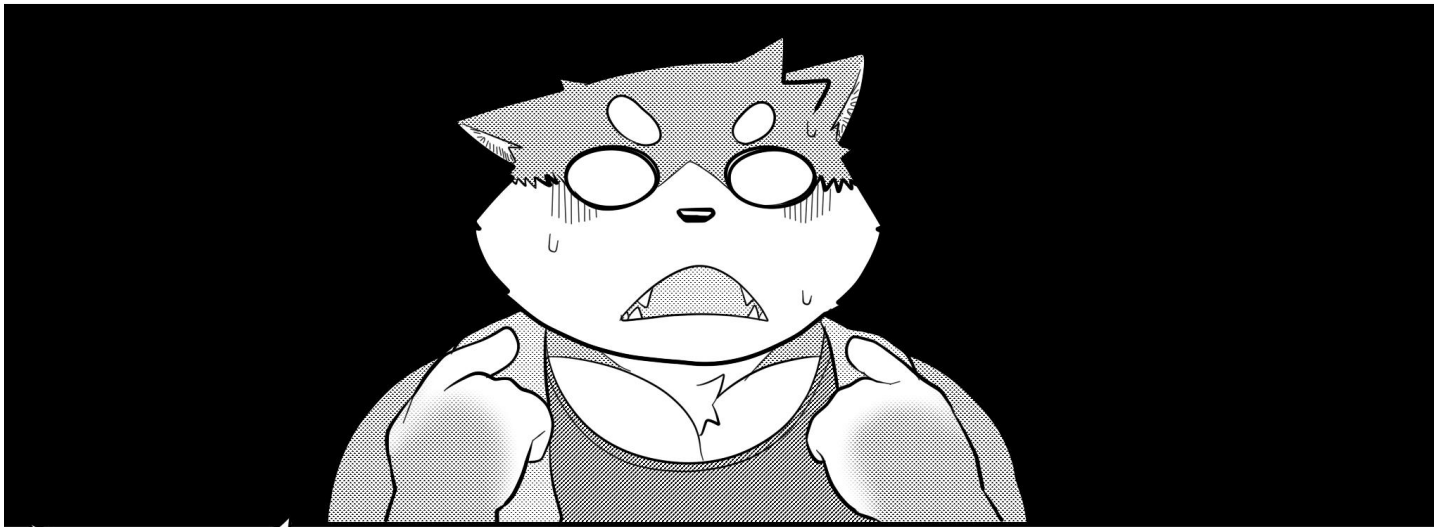
그치만  
'섹스 판타지'랑  
'섹스가 업무'인건  
완전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단 말이지

잠깐,  
나...

**히어로로서는  
너무 음향하고,**

**빌런으로서  
너무 소심한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악!!  
!!



아  
아  
아  
아  
악!!



깜짝이야..  
소리는 왜 질러!  
놀랐잖아!!



아니,너,  
언제 들어온거야!  
십년감수했네

몇번을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지!



집 비번 안다고  
그렇게 막 들어오면  
안드-



까  
아  
아  
아  
아  
악!!

맞다, 내가  
소개하는걸  
잊었네

이쪽은  
'코다'씨야!

안녕,  
'코다'  
입미다

응?

잠깐,  
잠깐만.  
묻고싶은 건  
많은데 말이야

히어로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이 동네에서  
살게 되었는데

**코다악 루베우스 (2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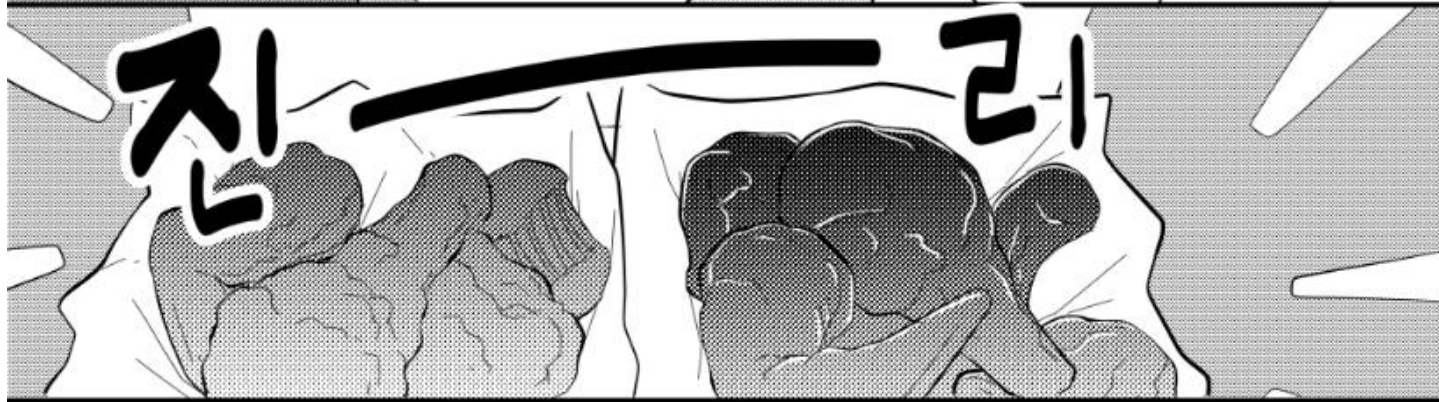
**외국에서 온 볼곰**

나 엉덩이 흰히  
보이고 있거든?  
작스트랩이라..

바지 좀  
입고 와서  
다시 이야기  
하면 안돼?













**'나는  
배신을  
증오한다'**

..이미 몇번이나  
말했어, 버니  
난 너를  
신뢰했는데..

**이제 그만해**



**넌 내 몸에  
생체기 하나 못낸다  
자네도 잘  
알고 있을 터**



**후우..**

**이거지  
못할지언정  
비길 순 있어**

**끝까지  
한 번 가보자고,  
장군**

다음 시간에







알았어  
관둘게

얼씨구

범이는 야한거  
좋아하잖아  
근데도 부끄러워?

그러게,  
누구에게  
보여지는거라고  
생각하니까  
심각하게  
부담스럽더라고

헤에~

남창이라고  
비웃지않을까..  
뭐 그런거

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말이지~

사실  
범이도  
알고있잖아?

스스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싶다'  
는 욕망이있단 걸

애는 뭔 소릴  
하는거야

야, 야  
발로  
누르지 마!

왜? 좋잖아  
발 페티쉬잖아

꺅

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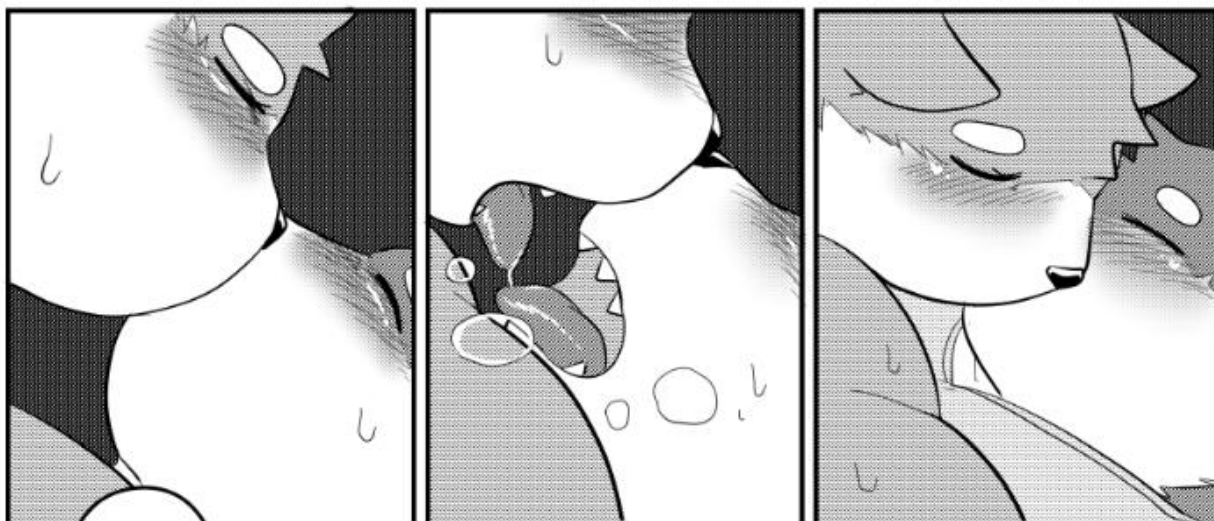
유혹하면  
콧  
따먹는다?

아악  
치사해  
!!

응 아냐  
내가 더  
힘 세







웃..  
하아..



흐웃..  
으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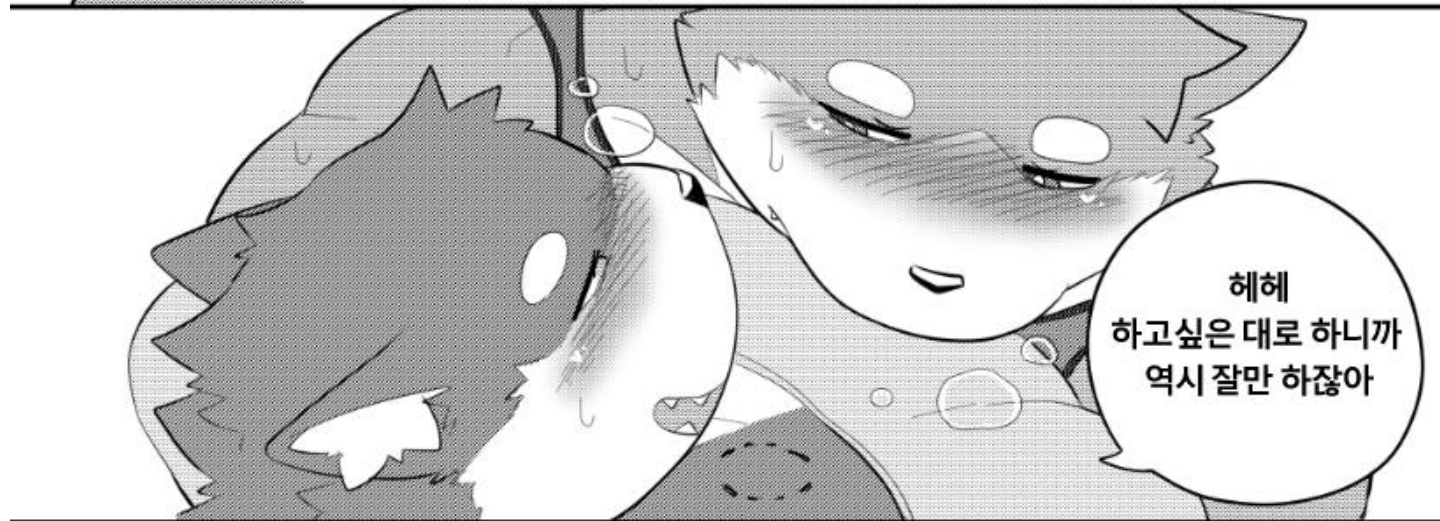
아  
아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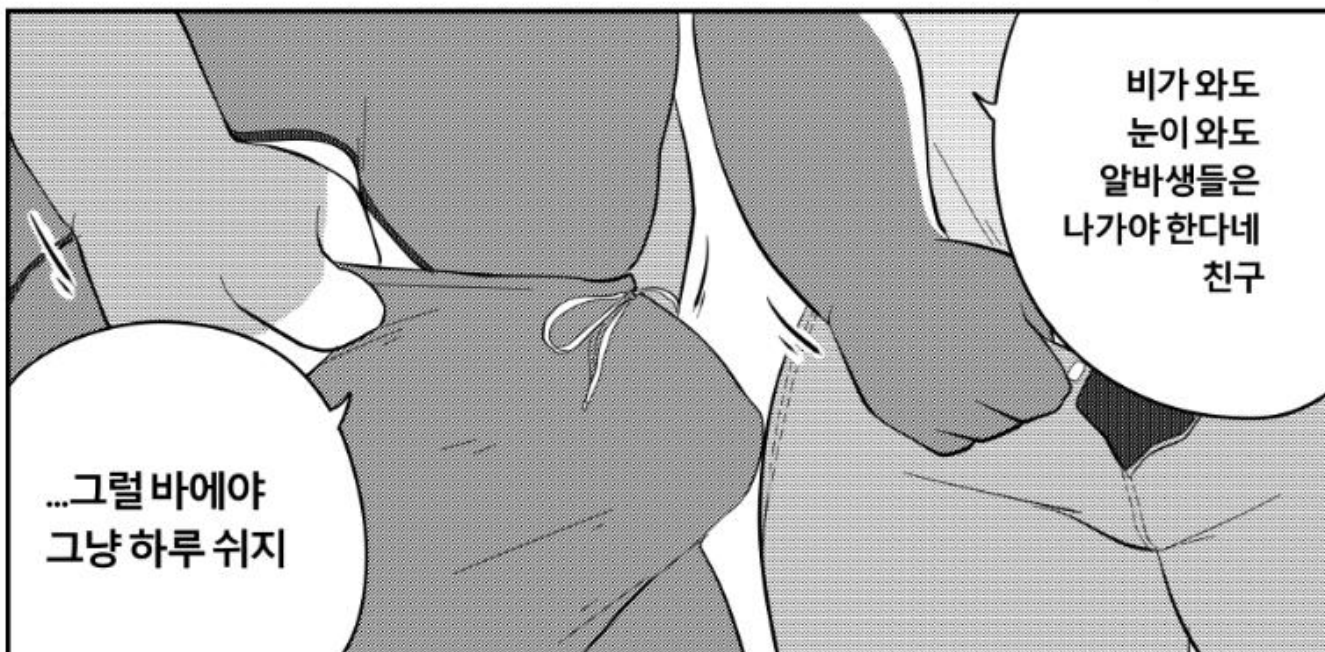
하아..













괜찮겠어?

물론!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면,  
치프가 어떻게든  
해줄거야

너, 그  
곤대를 꽤나  
신뢰하는구나

자기가 써야할  
노동력이  
누군가에게  
훼손당하면  
지옥끝까지  
찾아내서  
클럽 무대에  
묶어두고  
나이프  
쓰로잉을 할  
인물이니까

음  
그렇고도  
남을 또라이지

조심해서가

응, 내일 봐~



하여간  
늑대상어  
녀석



기껏 흥분  
다 시켜놓고-

본 게임  
들어가려니까  
도망가는 것 봐



얄미워  
죽겠어 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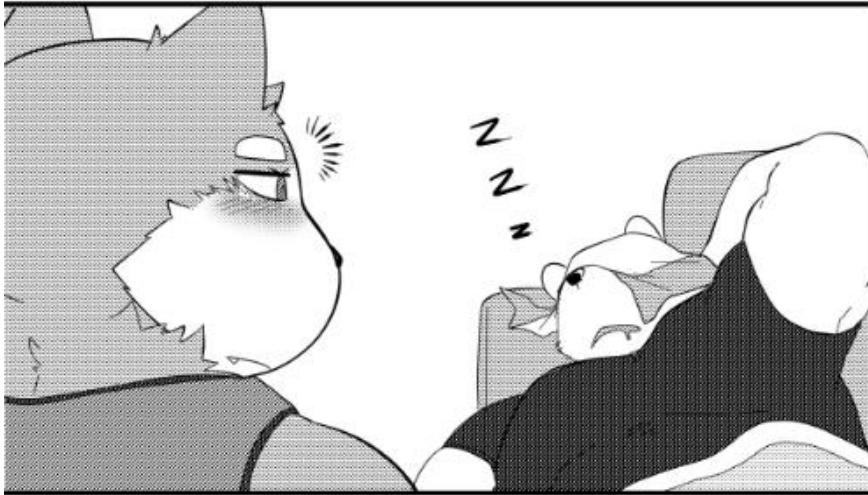


...

'나는 그래도 된다'  
라...

음.. 아무래도 깨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는게 좋겠지?

바로  
열집이니까  
뭐..



코디씨,  
코디씨?  
일어나세요

어..  
코디씨?







...20~23cm?!

시, 실화냐..

대체 어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뭐하면서 자라야  
이렇게 커지는거야

과연 외국인!










어... 음, 코디  
섹, 섹스할래요?









이래봐도 왕년엔  
많이 후리고 다녔다~  
이말이야!

나랑 한번도  
안한 놈은 있어도  
한번만 한 놈은  
없었다고!!

나도 맛깔나게  
잘 박아대!!  
아주 활고 빨고  
흔들어대고  
박 잘 탄단말야!!

그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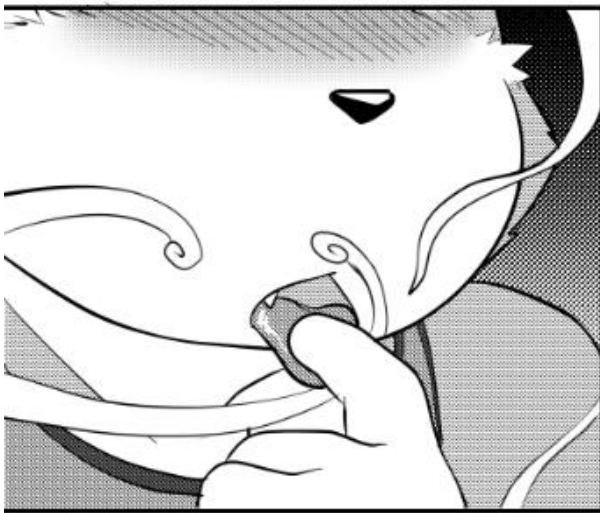


아,  
'펌핑(Pumping)'  
해볼까?



코디,  
찌는거  
보여줄까요?

찌는거?





?!?! 찼다!!

헉!  
원래 크다보니까  
효과도 잘 받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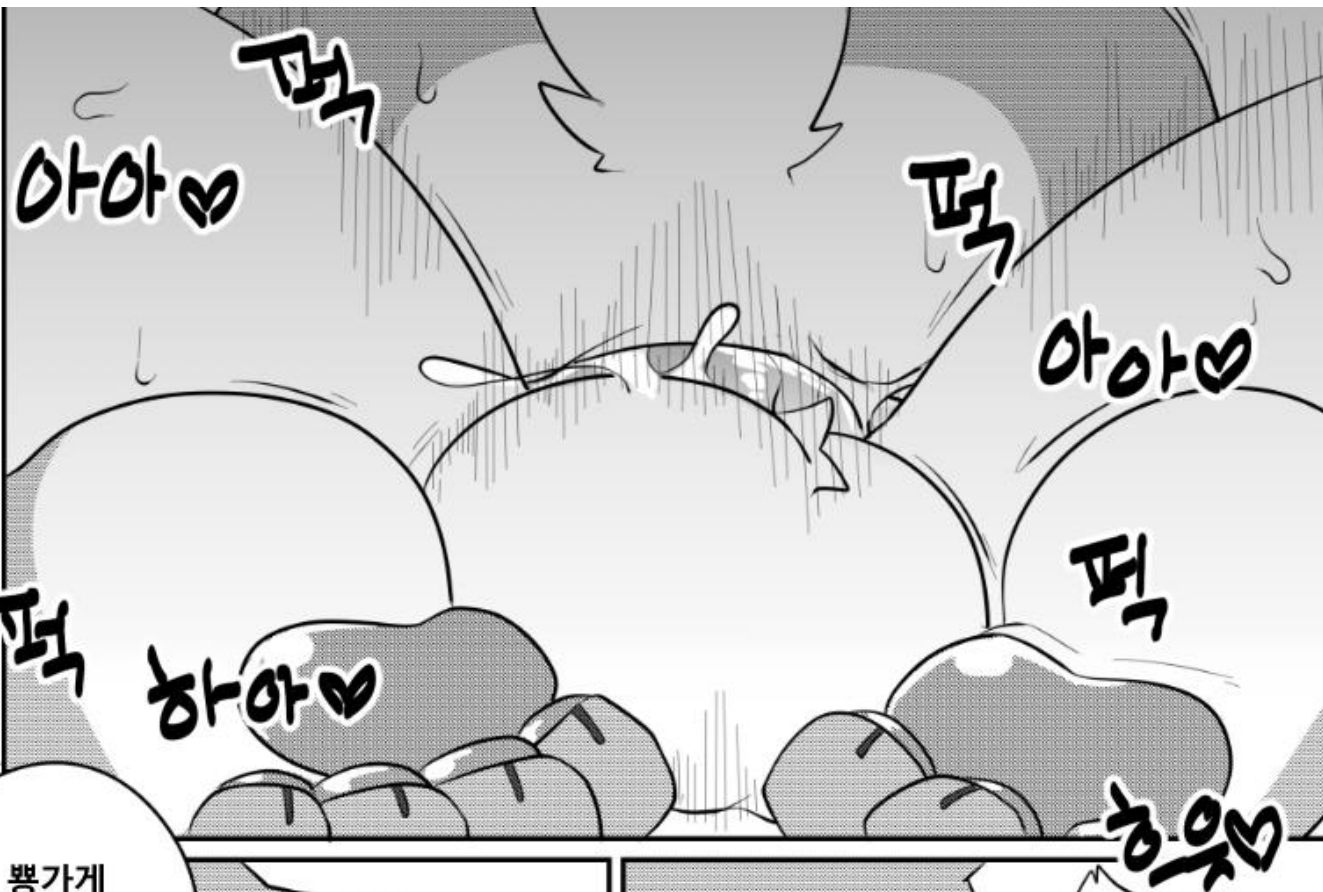
30cm쯤  
되겠는데..?











뽕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출력을  
올려줄게







조금만 더  
참으쇼

아직 더  
흔들어대고  
싶으니까

아아~

공떡

공떡

호아~

당

공떡

이잉~

당



사실 이미  
세번은 싸고도  
남았겠지,  
코디씨



팡

이제  
나도 한계니까

팡

팡

참지 말고  
내안 가득  
싸질러주소..♡

팡

팡

팡

팡







자, 당분간  
너의 '필살기'가  
될 친구다  
이름하여  
'리비도 밤'  
(Libido Bomb)!

어떻게  
쓰는 물건인데요?

이 구슬안에  
들어있는 연기를  
마신 놈은  
너가 누군가에게  
매혹을 걸 때  
같이 걸리게 해줘

자 이건 레시피  
니가 알아서  
만들어 써라

진짜 이런걸로  
이걸 만들 수  
있다고요??


어때  
이제 내가 좀  
멋져보이나?

뭐, 용무는  
그걸로 끝이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다음 상대랑  
접선하면  
연락하마

...





호호오,  
자신이 좀  
불으셨나봐  
나이트라이트

근데알파독은  
오늘 아지트에서  
패거리들이랑 모일걸?  
인원이 30명쯤  
되는데?

잘됐네요  
이참에떼박 AV  
업로드 하죠 뭐

곰곰히 생각해보니  
뺨치더라고요  
우열을 다시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밤  
기습할테니까,  
주소 좀 전송해주세요

새끼 좀  
섹시하게  
행동하네





마셔라=마셔라  
마셔라~

오늘 알파가  
밤에 부를까?

아하하하,  
그래서 내가  
'넌 단모 샴푸쓰냐  
장모 샴푸 쓰냐'  
하니까,

개가 자긴  
더러워지지 않는  
능력이 있어서  
그딴거  
안쓴다는거야

근데 알잖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구라였던거지

하하하, 알파  
능력을 개화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놀리진 마십시오

아~ 미안미안  
분위기를 타면  
설불리 우를  
범하게 된다니까


그나저나 알파  
최근에 하셨던  
거래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아아, 괜찮을걸?  
승패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했어,  
그 양반이









뭐냐  
저분홍 연기는

기습인가!


뭐, 뭐지?

아닌데?  
뭔가.. 강황냄새?

최루탄이다!

강황?  
설탕내음  
아니야?





이 냄새..  
익숙하다

나와라,  
나이트라이트!

안녕, 이쁜아





ㅋㅋ,  
빌런한테  
정정당당이고  
나발이고  
뭐가 있겠나?



이기면 그만,  
'비겁'은 진놈들이  
분에 차서  
지껄이는 단어에  
불과하지



혼자  
쳐들어온 주제에  
바로 모습을 드러낸  
스스로를 원망해라

그래, 저번에는  
다소 갑작스러워서  
내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지?

전원!!!!

쿵



집합



척척척척

내 휘하 아래 갱단은  
나의 완전한 수족이자  
완벽한 부하다

척척

일사분란하게  
몰아붙이는  
다수보다  
무서운건 없지





자,  
이제 넌 뭘 할거지?



근데, 넌  
아까 모두  
들이마신 연기가  
뭔지 안 궁금하냐?

또 저번같이  
작은 재롱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줄 생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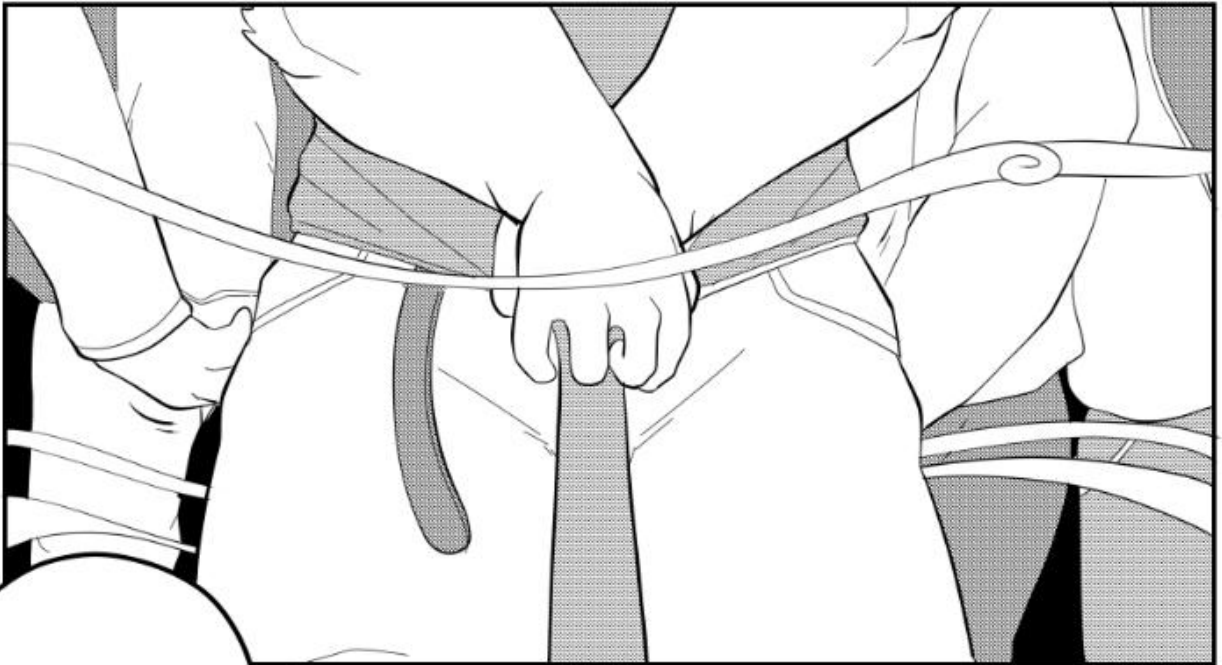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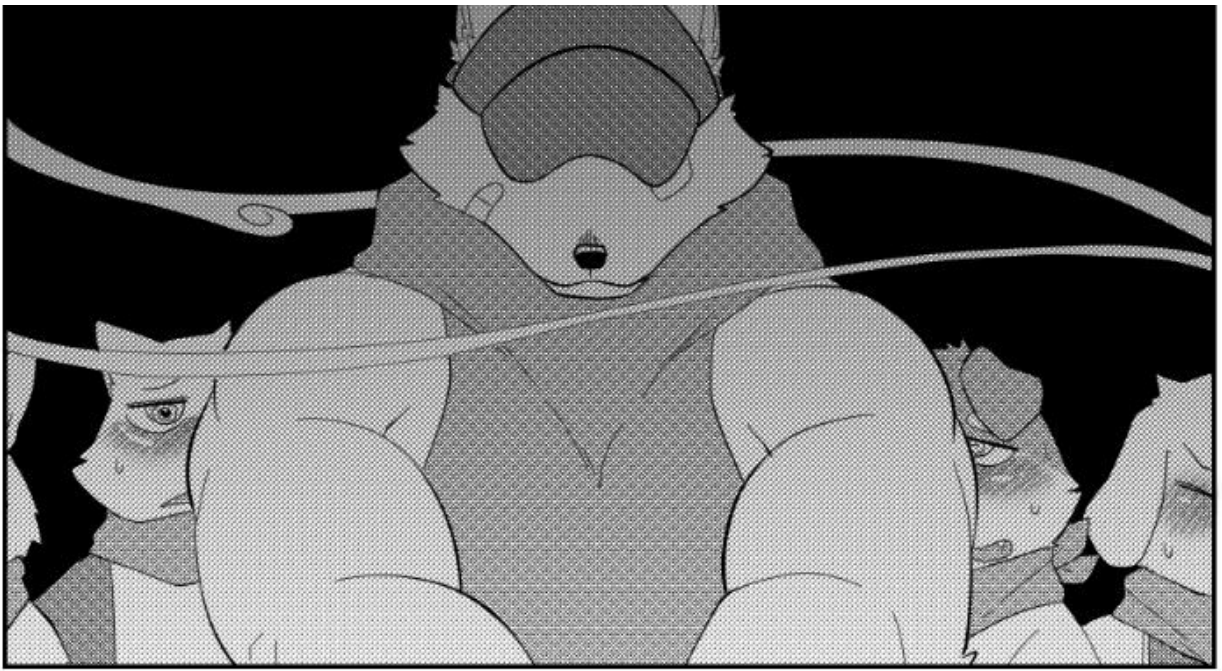
뭐?

질문 하나 더  
혹시 갱뱅 취향 있어?

싫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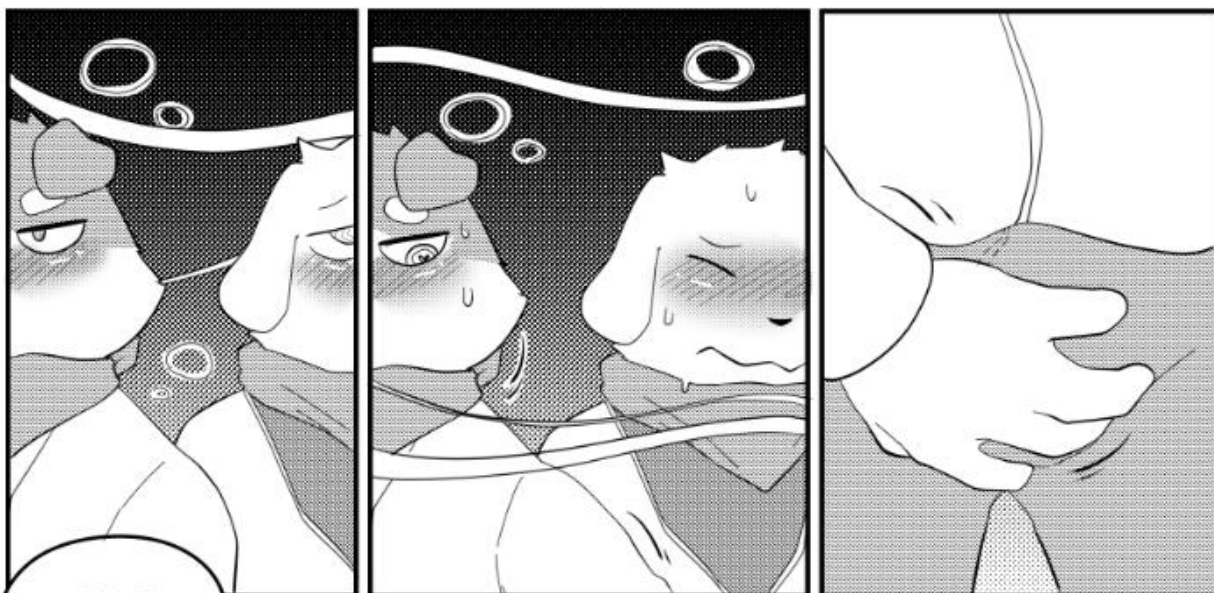




전원!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자리나 지켜



하아



진짜  
하지마?

웃..  
하지마


..만져줘

맞아, 말 그대로  
쓸데없는 짓이야  
알파



'우두머리'부터가  
이미 견디기  
버거워하는데

부하들이  
어떻게 버티겠어



안 그래?  
응?

참느라  
움직이지도 못하지?  
고간이 답답하지?  
벗고 싶지?

그냥  
마음 편하게 본능에  
몸을 맡기는 게 어때?

그 연기..  
그냥 연막한은 아니었군  
홍, 어차피  
우쭐대다가 저번처럼  
쫓이나 빨게 될 거다

글쎄, 이번엔  
'너'만 끌리게  
아니라서

벌렁

벌렁



?!  
뭐, 뭐야!!

알파.. 알파님..  
몸이 후끈거려요

알파님.. 헤헤

기분이 이상해요  
아랫도리가  
근질거려요

아아..  
알파님  
몸 너무아해..

음.. 갱단..  
제발.. 가만있어

능력은 제대로  
발동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째서..

맞아 능력은 제대로  
통하고 있어  
'알파'가 이미 발정났으니  
다들 발정하는거야

이해했어?

..!!


그럼 어디  
한번 말해 봐

좋아하는  
체위가 뭐야,  
알파?

아...아무거나...


아무거나  
영망진창으로

더럽혀지는게...  
죽습니다..



이것 참  
발랑 까졌구만

뭐, 좋아  
네 갱단들에게  
조금 여흥을 돌아달라고  
요청해보자고



악파♥

악파..

악파님  
사랑해요...



짹

아아♡

짹


음...!!

음지음지  
음

꽤  
실력이  
좋구나

애무는  
이정도로 하고,  
자 말해봐 알파

뒤에 꺾 차게  
넣어줄 바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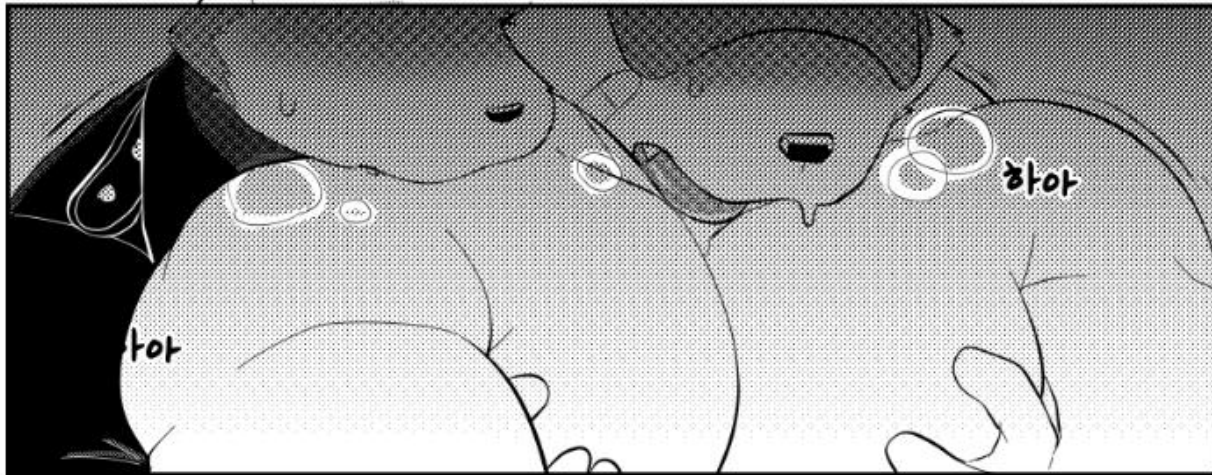


네...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스터..♡

좋아, 넣어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좋아?

짹

짹

벌써  
눈이 풀렸네,  
알파

이래가지고  
모두를  
통솔할 수 있겠어?


지스팟이..  
너무..  
자극이 잘 돼..서..

짹

아.. 못 참겠..다..

짹





아아...마스터..  
한계가...더이상은..

벌써?

실망이야  
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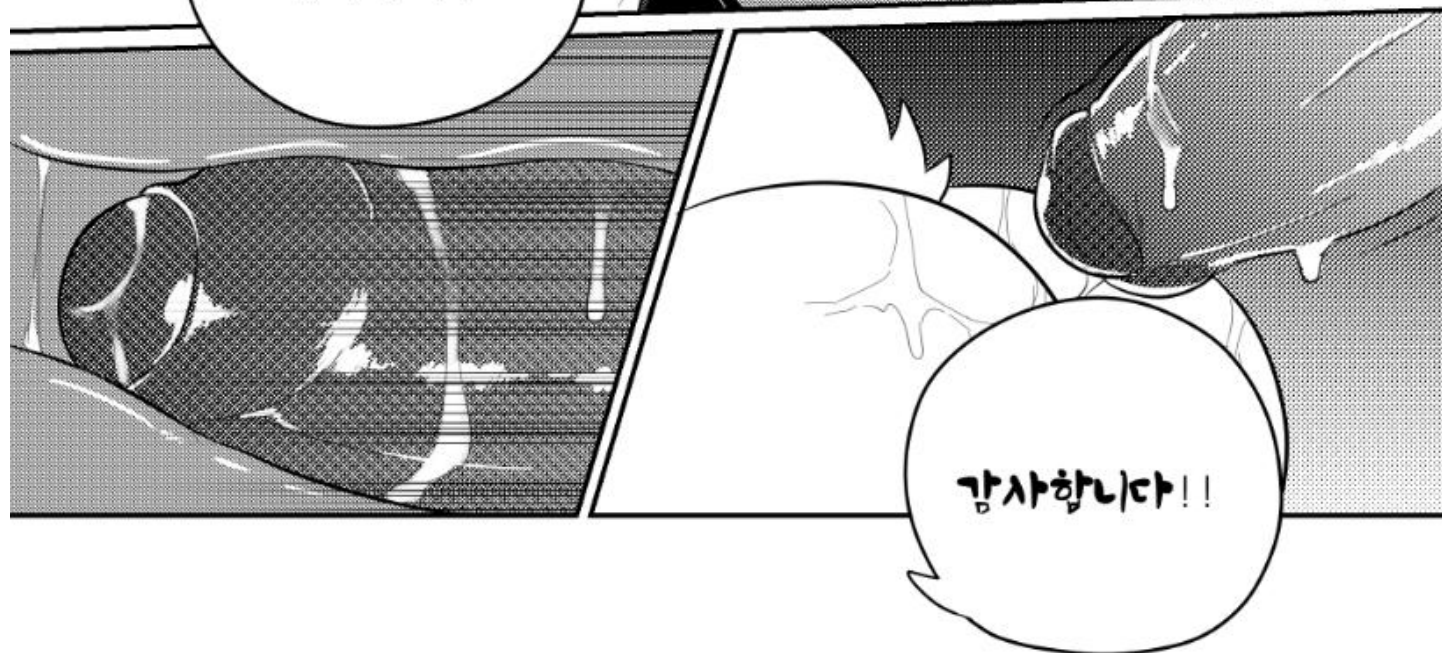
죄송합니다..  
제발..

어쩔 수 없구만





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히  
하자고

이곳은  
내가 접수했다  
이 구역의 주인은  
지금부터  
나이트라이트다

너희는 뭐..  
알바 아니야  
어디로든 좋으니까,  
얼른 내 구역에서  
짐싸고 나가

알아들었어?





다녀왔습니다

뽕 러 덩~

하아~~  
즐썩이어서  
개운하긴 한데

너무 일찍 끝나서 아쉽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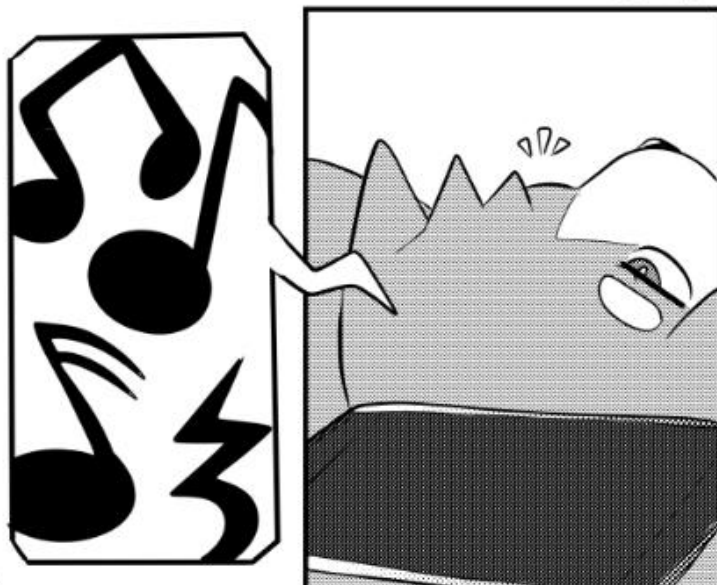
알파독씨한테  
그렇게 막말해도  
괜찮았을까??

아으아으으아 사적으로  
감정상하셨으면 어떡하지???

쭈욱



헤헤







앙 솔피 안녕~  
무슨 일이야~?

나? 나야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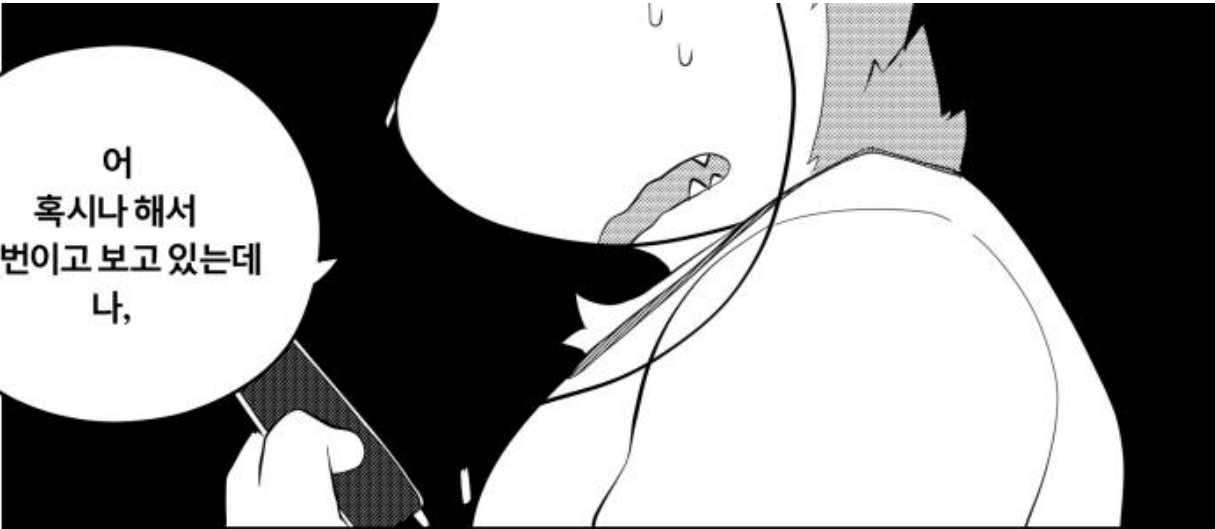
주말을 누리며  
게임하는 중이지?




...

진짜?





어  
혹시나 해서  
몇번이고 보고 있는데  
나,



히어로  
채용 됐어



# 제 2화

돌타는 금요일의 형제들

- 4 -

킬러웨일과  
나이트라이프

계속